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독도 가즈아~(JS+11기자단)
----------	-------------------

1. 학생과 교직원 대상 독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학생(317명)과 교사(22명)을 대상으로 총 9문항의 독도에 관한 기본 정보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학생에 비해 교사가 독도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독도의 행정구역과 독도의 거주원 수,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문항은 정답률이 저조함을 보여 독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2. 독도 월간지 만들기

：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독도 월간지를 만들어 전교생과 교사에게 배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련 지식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5월, 6월, 7월) 유인책으로 독도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십자말풀이를 뒷면에 실어 관심을 유도하고 모든 문항에 정답률 100%를 보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하였음. 또한 쿠폰판을 만들어 매월 발간되는 월간지 낱말풀이를 다 채운 학생에게 쿠폰판에 붙이는 쿠폰을 주어 향후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모두 참여하여 쿠폰을 받으면 선물을 주는 유인책을 활용하였습니다.

3. 학교 전광판을 이용한 독도 지킴이 학교 홍보 및 동아리 소개

： 2018학년도 우리학교가 독도 지킴이 학교로 선정된 것과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하게 될 독도 동아리 js+11 기자단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 중앙로비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함. 영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포스터에 동아리 부원들과 담당교사의 얼굴이미지를 합성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였음.

4. 독도 우표 만들기

： 1학년 사회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형 단원과 연계하여 독도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 후 독도 이미지를 형상화한 우표 만들기를 실시하여 우수 작품을 사회 수업 교실에 전시하고 나중에 만들게 된 독도 홍보 책갈피 배경사진으로 채택하였음.

： 3학년 사회의 경우 VI. 우리나라의 영토 3. 지켜야 할 우리영토, 독도와 연계하여 독도 신문을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1학년과 마찬가지로 독도 우표 만들기를 진행하였음. 내용이 잘 구성된 신문과 우표는 사회교실에 전시하여 사회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음.

5. 독도 배경 책갈피로 학교 밖 홍보

： 독도 우표 만들기에서 나온 잘 구성된 작품을 배경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독도 홍보에 사용함. 학교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 서점과 연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고 학교 홍보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음. 교내에서 그린 독도 포스터, 독도 그림, 독도 우표, 독도 월간지 등을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사랑의 날’에 학생 등교시간에 나누어주며 캠페인 활동을 펼치며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6. 기말고사 후 남은 교육과정의 시간을 활용한 ‘독도 골든벨’ 운영

: 1학기 기말고사 후 여름방학식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였음. 5월부터 7월 까지 진행한 독도 월간지의 내용과 독도 관련 책자를 선별하여 각 반별 2명씩 1개조로 총 15개 조가 참여한 독도 골든벨을 계획하여 우수 3개조에 교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음. 골든벨 사이에 ‘독도는 우리 땅’ 이란 노래를 주제로 댄스동아리원들의 플래시 몹도 기획하여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며 배우는 장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목적

우리 동아리의 목적은 교육과정과 함께 하여 적용 가능한 독도 홍보와 학교 안에서의 홍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 VI. 우리나라의 영토 단원에 부합한 독도 내용 학습 후 독도 신문 만들기, 독도 우표 만들기로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활동하였고, 1학년 사회시간을 활용하여 독도 우표 제작을 하여 그 결과물로 독도 홍보를 만들어 학생이 참여하고 직접 홍보를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후 생기는 여유시간을 가지고 ‘독도 골든벨’ 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재미와 함께 알아가는 과정 활동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학생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를 깊어지고 갈 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우리학교 독도 홍보 활동의 문제점을 진단도 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독도 홍보 관련 활동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

‘독도 가즈아’ 란 동아리명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가야 했기에 고민하던 중 아이들에게 ‘기자단’ 이란 타이틀을 주면 더 책임감을 갖고 맡은 일을 하지 않을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기자단 이란 이름으로 독도 홍보를 몇 가지의 주제를 나누어 담당 기자가 맡은 주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기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쓴 기사는 매월 나가는 독도 월간지에 실리고 맨 끝에 자기 이름 000기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했더니 주제에 대해 더욱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독도 여론 조사, 학교에서 진행된 독도주간 행사 취재, 독도 십자말풀이 등등의 기획을 몇 차례 자발적 회의를 통해 진행 되었고 다 완성된 월간지는 각 학생 및 교사에게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독도 책갈피 시안 검토, 골든벨 대회 사회 및 기획 등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독도지킴이 학교로 지정이 되어선지 일반 사회 교실을 독도 관련 교실로 꾸며보자고 시작된 활동이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남아 어떤 친구는 게시판 기사를 파트별로 나누어 정하고 취재를 했고 어떤 친구는 뒤 벽면을 독도와 관련이 있는 이사부, 안용복, 그리고 독도 섬 모양으로 부직포를 활용하여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텐데도 토요일에 삼삼오오 나와 붙이고 자르고 하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인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특색 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

독도 홍보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항상 느낀 것이 우리들만의 홍보로 끝이 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도 홍보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독도 우표 만들기에 잘 구성된 이미지를 살려 책갈피를 만들고 그 책갈피를 일반시민에게도 배부하면서 독도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또한 우리 학교 홍보도 될 것 같다 란 생각이 들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책갈피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책갈피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했고 그래서 우리 학교 주변의 대형 서점은 ‘홍0당’ 서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300매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반드시 계산할 때 들리는 카운터 앞 신간 소개 코너 자리에 비치하였고 불과 7일 만에 모두 소진되었다는 전화, 예쁘게 잘 만들었다는 전화, 우리학교가 좋은 학교인 듯 하다란 전화 등 책갈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책갈피이었지만 누구에겐가 독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니 뿌듯하였습니다.

지난 6월 ‘두산연강재단 해외경제시찰 교사’ 로 선발되어 일본 주요 5개국 경제시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 중간 중간 일본 수학여행 학생들과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 쫓고 우연히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희망도 보았고 앞으로 독도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10월경 우리학교 사업인 ‘예술 거점 학교’ 행사로 청주에 있는 초, 중, 고 1개 학생들이 합주회와 합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독도와 관련된 ‘홀로 아리랑’ 노래를 합창으로 해보는 것을 학교 측에 제안을 했고, 학교 측과 담당 선생님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독도 홍보가 된다면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요 성과

일단 가장 큰 효과는 학생, 교직원 모두 독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들이 없어졌고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말에 발간되는 독도 월간지를 기다리는 학생들까지도 생겨난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동아리원들의 노력으로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2018년 독도 지킴이 학교이어서 진행되었던 홍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 당연히 우리 영토란 인식이 있어서 인지 관심이 덜 한 것 같습니다.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논리 속셈 속에 영해와 영토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영토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관심 많이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젊어질 학생을 길러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영토, 지켜야 할 영토 독도에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독도 월간지 활용 홍보



❖ 독도 홍보 관련 사진



교내 중앙 복도 영상 게시판 활용



교내 중앙 복도 영상게시판 활용



독도 이벤트 참여 쿠폰판~



❖ 일반 교실을 독도 교실로



벽면 활용전 일반교실



벽면 활용 후 독도 교실로..

❖ 독도 골든벨 및 독도신문 만들기



독도 골든벨 대회 모습



중3 독도신문 만들기..

❖ 독도 우표 이미지를 활용한 독도 책갈피 만들기



❖ 독도 책갈피 외부 홍보(학교 주변 서점 활용)



주변 흥OO 서점 책갈피 홍보



❖ 독도 홍보 외부 (국립 생태원 독도 부스관)



❖ 독도 홍보 외부강연 및 독도 신문 만들기

